

‘소통카드’로 청각장애인·외국인 소통 편의 높인다

- 응급처치·식음료 요청 등 맞춤형 서비스 기대... 5월부터 10개 국적사에 비치

(사례)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립항공박물관(관장 안태현)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 이하 소통카드)를 제작하였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 소통카드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 기장 및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하여 소통카드를 제작하였다.

【 응급상황시 의사소통카드 예시 】



- 이번에 제작한 소통카드는 5월부터 10개 국적사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향후 한국을 취항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신윤근 (044-201-4204) |
| | | 담당자 | 서기관 | 박창일 (044-201-4213) |
| | 주무관 | | 김학희 (044-201-4185) | |
| | 국립항공박물관 | 책임자 | 실 장 | 김종석 (02-6940-3010) |
| 담당자 | | 팀 장 | 이성준 (02-6940-3099) | |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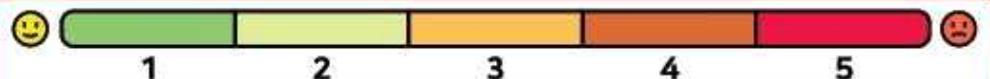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 (AAC) 카드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for Passengers

아파요 Pain



1 2 3 4 5



주세요 / 있어요? Please

해열제 / 소화제 Fever Reducer / Digestive Medicine

밴드 Band-Aid

담요 Blanket

안대 Sleep Mask

펜 Pen

음료 Drink

온수 / 냉수 Water(Hot) / Water(Cold)

커피 Coffee

오렌지 / 포도 Orange / Grape

탄산류 Sparkling

맥주 / 와인 Beer / Wine

기내식 In-Fight Meal

음식 Food

한식 Korean Food

비프 Beef

치킨 Chicken

생선 Fish

스낵 Snack

탑승객에게 요청 Ask for Passengers

승무원 요청 Request

창문 Window

등받이 Seat Upright

테이블 Stow Tray Table

안전 벨트 Fasten Seat Belt

필답 요청 Write Request